

2018년 11월 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실적 개선 및 규제 완화로 상승 연준,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메가뱅크 선정 기준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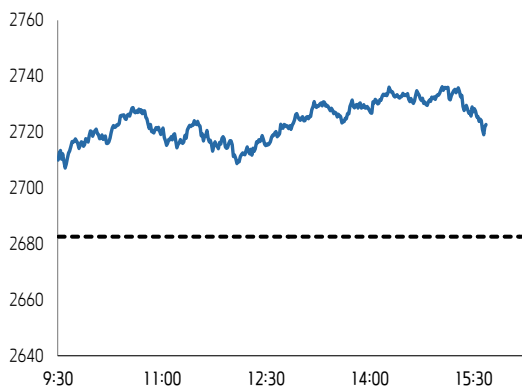
### 기술주, 금융주 상승 주도

미 증시는 페이스북(+3.81%)이 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보이자 FANG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 더불어 GM(+9.09%) 또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에 힘입어 상승폭 확대. 한편, BOA(+2.69%)를 비롯한 금융주도 연준의 금융규제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자 급등한 점도 상승 요인. 더불어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등 경제지표 또한 우호적인 영향(다우 +0.97%, 나스닥 +2.01%, S&P500 +1.09%, 러셀 2000 +0.32%)

미 증시는 ①기업들의 실적 개선 ②연준의 금융주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 먼저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은 활성 가입자수가 둔화되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발표 했으나 급등. 더불어 저커버그 CEO 가 컨퍼런스 콜에서 “보안 비용 증가 여파로 향후 이익이 둔화 되는 등 성장세가 위축 될 것” 이라고 지난 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내용을 언급.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강달러, 유럽에서의 보안 문제 등으로 이미 예견된 부진 이었다며 이보다 광고 판매 급증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주는 경향. 이에 힘입어 페이스북은 물론 ‘FANG’ 기업들도 급등. 더 나아가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최근 주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던 ‘자사주 매입 중단’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분석도 대형 기술주 투자심리 개선 효과

더불어 이날 연준이 도드-프랭크법을 완화 시키는 내용을 제안. 지난 5 월 공화당 주도의 입법안으로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 시킨 법률을 발표하며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져 왔었음. 트럼프와 공화당은 엄격한 규제가 대출과 경제 성장을 제한 한다고 주장. 이런 가운데 오늘은 연준이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메가뱅크 선정 기준을 자산 규모 2,500 억 달러 이상에서 7,000 억 달러로 상향 조정. 더불어 지방 은행 등 중소형 은행에 해당 되는 자산 규모 1,000~2,500 억 달러 규모의 은행들에게는 스트레스테스트는 2 년에 한번만 받는 것으로 완화. 물론 자산 규모 7,000 억 이상의 메가뱅크 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가 이어지지만 시장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금융주 강세를 촉발 시켰다는 평가.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29.69	+0.74	홍콩항셱	24,979.69	+1.60
KOSDAQ	648.67	+0.70	영국	7,128.10	+1.31
DOW	25,115.76	+0.97	독일	11,447.51	+1.42
NASDAQ	7,305.90	+2.01	프랑스	5,093.44	+2.31
S&P 500	2,711.74	+1.09	스페인	8,893.50	+0.99
상하이종합	2,602.78	+1.35	그리스	640.15	+0.55
일본	21,920.46	+2.16	이탈리아	19,050.22	+0.2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강세

페이스북(+3.81%)이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급등했다. 다만, 저커버그 CEO가 EU 의회에 출석해 보안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알파벳(+3.91%), 아마존(+4.42%), 넷플릭스(+5.59%) 등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마무리 되어 갔다는 점을 감안, '자사주 매입 중단'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 영향으로 MS(+2.97%), 애플(+2.61%)등도 상승했다.

한편, N비디아(+3.86%)는 전일 JP 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Neutral → Overweight)한 데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이크론(+4.75%)은 전일 CEO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모바일 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힘입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더불어 BOA(+2.69%), JP모건(+2.17%), 골드만삭스(+2.78%) 등 금융주는 연준의 규제 완화 언급에 힘입어 상승했다. GM(+9.09%)은 양호한 실적과 향후 전망에 힘입어 급등했다. 포드(+0.95%)도 동반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04%	대형 가치주 ETF	+0.36%
에너지섹터 ETF	-1.34%	중형 가치주 ETF	+0.50%
소매업체 ETF	-1.38%	소형 가치주 ETF	-0.28%
금융섹터 ETF	+1.35%	배당주 ETF	+0.65%
기술섹터 ETF	+2.38%	변동성 ETF	-3.68%
소셜 미디어업체 ETF	+3.13%	대형 성장주 ETF	+1.66%
인터넷업체 ETF	+3.29%	중형 성장주 ETF	+1.72%
리스업체 ETF	-1.35%	소형 성장주 ETF	+0.95%
주택건설업체 ETF	+0.56%	신흥국 고배당 ETF	+0.55%
바이오섹터 ETF	+0.42%	신흥국 저변동성 ETF	+1.16%
헬스케어 ETF	+0.14%	하이일드 ETF	+0.14%
곡물 ETF	-0.23%	물가연동채 ETF	-0.22%
반도체 ETF	+1.32%	Long/short ETF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97.37	+0.60%	+1.33%	-13.43%
소재	328.69	+1.35%	+4.09%	-10.13%
산업재	587.50	+0.82%	+0.87%	-12.22%
경기소비재	831.97	+1.63%	+1.04%	-9.47%
필수소비재	566.68	-0.86%	+0.66%	+2.65%
헬스케어	1,026.70	+0.19%	+1.63%	-6.97%
금융	435.85	+1.43%	+4.21%	-6.01%
IT	1,215.67	+2.39%	+3.11%	-8.79%
커뮤니케이션	150.88	+2.10%	+3.16%	-6.28%
유틸리티	272.38	-1.15%	-2.71%	+2.17%
부동산	198.36	-1.37%	+0.42%	+0.3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중국 경제지표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43% MSCI 신흥 지수는 1.11%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순매수(1,018 계약)에 힘입어 1.45pt 상승한 265.5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40.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실적 개선 및 규제 완화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국 증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투자심리 개선에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주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오늘 관세청은 10 월 한국의 수출입 통계를 발표한다. 시장참여자들은 한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 17.0%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2017년에는 추석연휴가 10 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조업일수 효과도 있지만 여전히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반면, 한국시각 10 시 45 분에 발표되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지수는 주목된다. 지난달 기준선인 50.0 으로 발표되었으며, 이번달에는 무역분쟁 여파로 기준선을 하회한 49.9 로 전망하고 있다. 전일 중국 통계국의 제조업 PMI 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늘 발표되는 차이신 제조업지수는 기준선을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중국 제조업지표 발표된 이후 중국 증시의 변화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개선

10 월 미국 ADP 민간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수는 전월(21 만 8 천건) 보다 증가한 22 만 7 천건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서비스업종이 18 만 9 천 건이 증가하며 이를 주도 했다.

미국 3 분기 고용비용 지수는 전분기 대비 0.8% 상승하며 지난 분기 발표된 전분기 대비 0.6% 상승을 상회했다.

10 월 시카고 PMI 지수는 전월(60.4) 보다 둔화된 58.4 로 발표되었다. 중국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투입비용이 증가한 여파로 제조업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채금리 상승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OPEC 의 10 월 산유량이 전월 보다 하루 39 만 배럴 증가한 3,331 만 배럴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알려지자 하락 했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은 지난주 원유재고가 321 만 7 천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는 지난주 발표치(634.6 만 배럴)나 예상치(411 만 배럴)를 하회했다. 더불어 정제유도 405.4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며 시장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으며 가솔린 재고 또한 316.1 만 배럴 감소하는 등 국제유가 상승요인들이 많았으나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 적이었다.

달러화는 미국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합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이 나온 데 힘입어 한때 달러 대비 급등하는 등 변동성을 키운 점도 외환시장의 특징이었다.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고용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0.8% 상승하는 등 견조한 움직임을 보인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더불어 미국 재무부가 2019 년에 물가연동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게 되며 이는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기 때문이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19%, 철근도 0.12%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5.31	-1.31	-2.26	Dollar Index	97.047	+0.04	+0.64
브렌트유	75.04	-1.20	-1.48	EUR/USD	1.1322	-0.20	-0.61
금	1,215.00	-0.84	-1.31	USD/JPY	112.87	-0.23	+0.54
은	14,282	-1.24	-2.68	GBP/USD	1.2772	+0.52	-0.85
알루미늄	1,953.00	-0.71	-2.20	USD/CHF	1.008	+0.28	+1.01
전기동	5,992.00	-0.66	-3.03	AUD/USD	0.7078	-0.38	+0.25
아연	2,493.00	-2.24	-6.38	USD/CAD	1.3158	+0.37	+0.77
옥수수	363.25	-0.41	-1.36	USD/BRL	3.7273	+0.77	-0.16
밀	500.50	+0.15	+0.20	USD/CNH	6.9779	+0.12	+0.49
대두	851.75	+0.56	-1.36	USD/KRW	1139.60	+0.04	+0.64
커피	112.70	+0.27	-6.28	USD/KRW NDF 1M	1140.75	+0.17	+0.19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3.147	+2.46	+4.38	스페인	1.545	-2.00	-7.70
한국	2.245	+2.30	-5.70	포르투갈	1.869	-1.00	-10.80
일본	0.127	+0.50	-0.80	그리스	4.214	-1.60	-6.20
독일	0.385	+1.60	-1.10	이탈리아	3.425	-4.70	-17.70